

전북

산업+주거+관광 3대축 개발 새만금 명품도시 조성 본격화

내년부터 새만금 신도시가 산업과 주거, 상업, 관광기능이 통합된 '명품도시'로 본격 조성된다.

국토연구원(원장 박양호)은 지난 22일 경기 종합 연구원 대강당에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안)'을 제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안은 지난 1월 발표된 '새만금 기본구상'에 따라 복합도시, 농업융합 등 토지이용계획과 내부 간선교통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991년 11월 28일 새만금 간척사업의 첫 삽을 뜬 지 20여년만에 우여곡절을 거쳐 내년 초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다.

20년만에 개발계획 확정 = 종합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새만금은 외국인투자 지역, 국제업무·관광 지역, 군산 산업단지, 변산 해안국립공원으로 이뤄진 '주력산업 혁신축'과 전주도시권, 새만금 배후도시, 향만으로 구성되는 '환형해

경제권 연계축', 신·재생 에너지 및 과학기술·산업융합을 중심으로 하는 '신산업 발전축' 등 3대 발전축으로 개발된다.

핵심지역인 복합도시 '아리울'(67.3km)은 호수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산업·주거·상업기능, 남쪽에는 관광·주거기능이 연계된 통합공간으로 배치된다.

새만금 지역의 총 예상인구는 73만명으로, 이 가운데 복합도시와 배후도시, 군산경제자유구역 등 중심부가 46만 명을 수용한다.

이와 함께 만경·동진간 권역의 국가·지방하천을 정비해 자정능력을 키워주고 새만금내 생태·환경용지(76.4km)를 잇는 생태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20.3km)를 조성해 에너지 수요의 15%를 태양광, 바이오, 풍력 등으로 충당한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농업지역은 기업농을 유치하고 기업 기술·경영 기법을 도입해 농식품 연구·생산·가공·유통 체계를 갖춘 첨단 수출 농업기지로 육성된다.

특히 전북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례를 우려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개발 지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면 효율적인 재정투입으로 속도를 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비를 국가가 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나서 본격 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이하 전발연)은 지난 22일 '2011 전북지역 10대 정책 아젠다'를 선정했다.

전발연은 우선 미국과 함께 세계 각국으로 떠오른 중국을 겨냥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차이나 플랜'의 추진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적 위상과 더불어 생산·소비시장이 확대되는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상호 협력·경쟁 관계를 구축하는 만큼 전북도에 맞는 '새만금내 중국특구 건설' '새만금 지역 해외자본 유치' '중국관광객 유치 위한 마케팅 강화' '중국 해외사무소 운영활성화



“입시에 지친 청소년들은 모여라”

입실군은 지난 22일 청소년수련관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축제를 열었다. '도약을 위한 재충전'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축제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정서순화가 부족한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돼 군내 중·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입실군은 지난 22일 청소년수련관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축제를 열었다. '도약을 위한 재충전'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축제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정서순화가 부족한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돼 군내 중·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임실 '축제 통폐합' 추진

임실군은 축제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제 통폐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실군은 내년 예산중 축제행사 지원금 4억 5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개별적으로 열려왔던 축제 통폐합 작업에 돌입했다.

올해 축제에 지원된 예산은 오수의 견본화제 1억4000만원을 비롯해 ▲치초축제(1억5000만원) ▲소초사 선문화제(2억2000만원) ▲고추축제(5000만원) ▲산머루축제(3600만원) 등이다.

남원 멜론 수도권 출하

남원시 주생면에서 재배한 겨울철 멜론이 첫 수확 돼 서울 등 수도권으로 출하되고 있다. 겨울 멜론은 지난 9월 12일 정식하 후 3개월여 만에 수확한 것이다.

남원시는 명품멜론 육성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멜론 전용 하우스 시설 등에 68억8000만원을 투자했고, 올해는 11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용하우스, 양액 재배시설, 무인 방제시설 등을 설치했다.

남원 멜론은 홍콩 국제 식품박람회 출품, '10대 베스트 상품'에 선정됐고, 올해는 일본·동남아 등에 19억을 수출해 3억8000여만원의 외화를 획득했다.

군산항 컨테이너 10만TEU 돌파

개항 111년만에 처음...전국 6번째 성과

군산항이 개항 111년만에 처음으로 연간 컨테이너 화물량 10만 TEU(1TEU=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시대를 열었다.

통한 자동차 부품과 목재, 페이퍼 등 환적화물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도와 군산시, 화물처리선사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군산항 화물유치단이 적극적으로 화물유치에 나선 것도 도움이 됐다.

“중국 시장 뚫어야 산다”

전북발전연 ‘10대 정책 아젠다’ 선정

전북발전연구원(이하 전발연)은 지난 22일 '2011 전북지역 10대 정책 아젠다'를 선정했다.

“어학·논리력 등 학생 경쟁력 강화”

정세현 원광대 총장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해 '원광' 브랜드를 전국화·세계화 시키겠습니다.”

Advertisement for Jeonbuk University featuring a portrait of President Jeong Seon and text about student competitiveness and university goals.



Advertisement for GG경매 컨설팅(주) (GG Auction Consulting Co., Ltd.)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G Auction Consulting Co., Ltd. featuring a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contact info.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현대공인중개사 (Modern Public Broker) focusing on land and house sales in various areas like Gwangju and Gwangju.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공인중개사 (Sangmu Land Public Broker)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rental.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highlighting their services and agent information.